

AI 활용 업무 자동화로 행정혁신 본격

전북교육청, 실무 적용 가능한 자동화 제작법 공유... 교육행정 특화 도구 개발·현장 확산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를 통해 교육행정 업무 방식의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전주교육지원청 전산교육실에서 모두 8회에 걸쳐 '인공지능(AI) 활용 업무 자동화 및 실기 연수'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업무 자동화 도구를 직접 제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높이고 교육행정 업무의 특성을 반영한 자동화 도구 개발과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자동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직접 AI 기반 자동화 도구를 개발해 활용해 온 교육청 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해 현장 중심 교육으로 진행됐다.

강사로는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 박호용 주무관과 이리고등학교 한성준 주무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전주교육지원청 전산교육실에서 모두 8회에 걸쳐 인공지능(AI) 활용 업무 자동화 실기 연수'를 운영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업무 경험과 자동화 도구 개발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제작 방법을 교육했다.

교육은 회차별 30명 안팎의 소규모

실습 형태로 운영됐다. 코딩 경험이 없는 직원들도 생성형 AI를 활용해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자동화 도구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AI를 활용한 행정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활용 업무 자동화 도구'의 적극행정 적용 사례'를 주제로 후속 연수를 마련하고, 직원들이 직접 개발한 자동화 도구가 실제 행정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양성화 정책기획과장은 "AI 시대에는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업무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원들이 만든 AI 활용 업무 자동화 도구를 현장에 적용해 데이터와 AI 기반의 스마트 교육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행정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AI 기반 업무 자동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여 행정 효율성과 업무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그리는 '전주 교육혁신선도지역'

전주교육지원청, 교원 등 참여 지역 의견수렴 정담회 개최

교육격차 해소·AI·대학

산업 연계 방안 함께 모색



전주교육지원청은 13일 교원과 학부모, 마을활동가, 지역교육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교육혁신선도지역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

전주교육지원청이 지역의 교육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전주형 교육혁신' 전략 마련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모았다.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선영)은 13일 교원과 학부모, 마을활동가, 지역교육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 교육혁신선도지역 전략 수립을 위한 지역 의견수렴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교육혁신선도지역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전주의 교육환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전략을 지역교육공동체와 함께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미 화점된 사업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주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출발점으로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향후 사업과 전략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주교육지원청은 교육혁신선도지역 29형의 필수과제인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와 대학·산업 연계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인공지능(AI)·미래교육과 수학·논리, 전주형 교육돌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담회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 교육여건 차이와 학생 수 감소, 일부 지역의 과밀 현상, 이주배경·다문화

학생 증가 등을 지역 교육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돌봄 공백과 방학 중 교육기회의 차이, AI·디지털 교육의 심화 필요성,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부족 등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반면 전주가 가진 책·출판과 독서·인문 인프라를 비롯해 전북대와 전주대 등 지역 대학 AI 교육 및 전문 인프라, K-푸드·영화·IP 등 지역 특화산업, 마을교육공동체 등은 교육혁신을 위한 강점으로 공유됐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제는 풀이'고 전주의 강점은 교육으로 연결한다

는 방향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전주의 책·출판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과 AI 시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경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높이는 교육, 교육기회 확대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학과 산업체, 스타트업을 학생들의 진로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번 정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향후 전주교육혁신선도지역의 세부 전략과 사업을 구체화

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현장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채선영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혁신선도지역의 핵심은 전주가 가진 다양한 교육자원을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더 잘 연결하는 데 있다"며 "교원과 학부모, 마을과 대학, 산업체와 지역기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전주 아이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지역민 건강 증진·지역사회 나눔 실천

우석대, 봉동농협서 완주군민 대상 한방 의료봉사

장학금 전달식도... 봉동로터리클럽 기부로 마련

우석대학교가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해 한방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 사회봉사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완주군 봉동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완주 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봉동로터리클럽과 함께 마련했으며, 우석대학교 한의학과와 한의예과, 한약학과 학생 및 지도교수 등 20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침과 뜸 등 한방진료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첫날에는 의료봉사사와 함께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유희태 완주군수와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이성운 봉동로터리클럽 회장, 김은희 봉동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봉동로터리클럽의 기부로 마련된 장학금은 우석대학교 김태관·김하운 학생(한의학과 2년)에게 각각 50만원씩, 모두 100만원이 전달됐다.

우석대학교와 봉동로터리클럽은 지역사회 나눔과 상생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매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 등 비롯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석대학교 사회봉사실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완주군 봉동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완주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은 "대학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것은 대학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원주=염재복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한은 특성화고 부문 공개최용 최종 합격

강호항공고 김하은 학생



특,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준비, 자기소개서 작성, 모의면접, 취업캠프 등 취업 준비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높여왔다.

염택선 교장은 "2024년 김계림 학생에 이어 올해 또다시 최종 합격자를 배출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금융권 취업교육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강화해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교청=김영식 기자

강호항공고등학교가 한국은행 특성화고 부문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자를 배출했다.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는 항공경영서비스과 3학년 김하은 학생이 한국은행 일반사무직원 공개채용 특성화고 부문에 지원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한국은행 특성화고 부문 전국 선발 인원은 모두 22명이다. 강호항공고는 2024년 김계림 학생에 이어 2년 만에 한국은행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호항공고는 그동안 학생들의 금융권과 공공기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인 취업교육을 운영해왔다.

공채만 운영을 비롯해 자격증 취

우리 아이 바른 성장 위한 부모의 역할

전북교육청, 20일 학생성장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 개최

'성조숙증·키 성장 전문가' 박기원 한의학 박사 참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을 마련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전북교육청 창조나래 3층 시청각실에서 '학생성장 지원 학부모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학부모가 자녀의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학생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박기원 한의학·의학 박사가 참여한다. 박 원장은 서정환의원 원장으로 성조숙증과 키 성장 분야 전문가이며, '몸다리가 되는 비결', '한 방으로 총명한 두뇌 만들기' 등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강의는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부모 아카데미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박기원
한의학 박사

- 서정환의원 원장
- 한국일보 주최 '사회공헌부문' 대상 수상
- 저서 <몸다리가 되는 비결>, <한 방으로 총명한 두뇌 만들기> 등

8.20.(목) 19:00

강연 내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창조나래(별관) 3층 시청각실
신청비: 0원 (주차비 별도)

신청 방법 양재과 상담조사 QR코드를 스캔한 후 신청서 접수 (이메일로 확인 또는 당일 현장접수 가능 (신청자별 선착순 50명))

신청 기간 2026. 08.13.(목) 09:00 ~ 08.19.(수) 18:00까지
신청처: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완주읍 200번길 10-1)

문의 전화 교육정책과(20063-239-3151)

주요 내용은 학생들의 신체 변화에 따른 올바른 식단과 운동법, 사춘기 성격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 잘못된 알려진 건강상식과 보건의료 바로 알기, 초등학생 성조숙증과 학교폭력의 상관관계 및 대처법 등이다.

학부모들이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와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 인원은 400명이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사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아이의 바른 성장은 학교와 가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며,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학부모 아카데미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기자

전주기전대, 서천군 지역기업 경쟁력 키운다

지역기업 성장지원사업 협약... 참여기업 5곳과 협력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이 서천군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 11일 서천군청에서 '2026년 시군 특화 일자리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천군 지역기업 성장지원사업' 선정 기업 5곳을 대상으로 관리자 교육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참여기업과 수행기관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비 지원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역량 강화, 고용 창출을 연계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여기업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 기업의 여건과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받아 기업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서천군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

력단은 사업 운영과 함께 참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이날 함께 진행된 관리자 교육에서는 기업의 단계적인 사업 수행을 넘어 조직 운영과 인력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인사·노무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와 안정적인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진행됐다.

/오상근 기자